

2022 OPEN! 열릴지이다 II.

감정의 폭풍이 몰려올 때 (기쁨과 소망의 복음)

1. 어떤 문을 열고 싶은가?

복음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분명히 나타난다. 복음 자체인 예수님은 항상 어려움이 있는 곳에 함께 하셨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포로 된 자와 함께 하셨다.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현실의 필요와 멀리 있지 않다. 어려움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려움 중앙에 있었다. 어려움을 방관하고 구경하는 당시의 종교인들의 신앙은, 폭풍을 겪고 있는 어려움 바깥에서 폭풍을 구경만 할 뿐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폭풍 한 가운데 계셨다. 성경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사야 말씀을 성취하신다.

[누가복음 4:17-20] 17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 (1) 17절 - 이사야의 글 (이사야 61장)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직접 성취하심.
- (2) 18절 - 예수님이 사역. 복음이 있어야 할 위치. 폭풍같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쁨과 소망의 복음.
- (3) 19, 20절 -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음 (은혜의 시작 - 인간의 힘이 소멸되는 한계상황의 시점)
- (4) 사 61:2절 -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예수님은 은혜의 해에서 책을 덮으심. 왜냐하면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기 때문.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성도들이 알아야 할 복음의 성격은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은 은혜의 문이 열려있다. 은혜의 문 안을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회복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구원받고 치유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시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은혜의 문'이 되어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그 어려움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2. 우울증의 증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후 세계 각국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의 발생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한국은 우울증 유병률이 36.8%로 OECD 1위로 됐다. 한국 국민의 10명 중 4명이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느낀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자살률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결국 한국은 자살률과 우울증 모두 OECD 1위 국가가 되었다' / 출처 : 의학신문 (<http://www.bosa.co.kr>)

[시편 9:9] 여호와와 억눌린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에 산성이시로다

[마태복음 24: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충격적인 내용이다. 우울증은 자기 능력보다 환경의 압박이 더 클 때 오는 두려움이다. 시편 9:9절에 보면 여호와와 억눌린 자의 산성이시다. 우울증은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억눌려 있는 상태이다. 억눌려 있는 그 상태에서부터 사람들은 극심한 슬픈 감정, 분노, 절망, 피로 등 다양한 증상을 겪는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신다. 영어로 보면 차갑게 되었다고 말한다. 차가운 감정의 사랑은 없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 이유는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위에서 언급한 한 것처럼 엄청난 '감정의 파도가 쓰나미' 급으로 밀려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쓰나미 급으로 밀려오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다. 폭풍과 같은 상황이다. 감정의 파도가 엄청나다. 파도의 특징이 있다. 파도의 낙차가 있다. 파도는 시작이 있고, 힘의 정점이 있고, 그리고 소멸된다. 이런 파도의 낙차를 이용하는 스포츠가 서핑이다. 모든 상황이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 경제, 정치 등) 이런 상황에서 복음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어떤 문을 열어야 하는가?

3. 폭풍 속의 제자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폭풍 속의 제자들이다.

[마가복음 4:35-39] 35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던지 38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들은 현실의 폭풍을 만난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의 폭풍을 그들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었다. 그래서 38절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한다. 엄청난 현실의 파도가 만들어주는 두려움이 그들을 짓눌렀다. 그 속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죽음'의 실제 앞까지 갔다. 마찬가지로이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어려움이 만드는 감정의 파도 앞에 두려워하고 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폭풍 중심에 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있어야 할 위치를 보여준다.

(1) 예수님은 폭풍 한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복음은 언제나 폭풍 한 가운데 있다. 종교인들처럼 폭풍 언저리나 주변에 있지 않다. 폭풍 주변에 있는 복음은 힘이 없다. 어떤 해결의 문도 열 수 없다. 방관할 뿐이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복음일 뿐이다. 바로 그때 교회는 타락한다. (중세 기독교가 암흑인 이유) 성도는 타락한다.

(2) 폭풍 한 가운데

폭풍 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잠은 잔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것이다. 근심이 있으면 잠을 잘 수 없다. 지금은 불면의 시대이다. 즉, 근심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신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태풍의 눈, 중심은 고요하다. 중심을 벗어날수록 파도와 바람은 강력하다. 바로 이 장면이 복음의 핵심이다. 진짜 복음은 환난의 중심에서 '평안'을 준다. 복음의 위치는 폭풍의 언저리가 아니라 중심이다. 그래서 폭풍의 중심으로 가야 한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살롬'으로 계신다.

(3) 감정의 파도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

폭풍 속의 제자들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35절이다. 제자들이 어느 시점에서 폭풍을 만나고 있는가? 나를 삼킬 듯한 파도의 문제가 일어난 시점을 보아야 한다. '과정'중에 일어난 파도이다. 그 단서가 35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말씀하셨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무슨 말인가? 여정의 시작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목적지는 호수 건너편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폭풍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려움은 있지만 과정일 뿐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폭풍이 아니라 호수 건너편이다. 그러므로 폭풍을 통해 밀려온 감정의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깊이 두어야 한다. 붙잡아야 한다.

4. 소망의 닻을 내리라

[히브리서 6:19-20]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

19 We have this hope as an anchor for the soul, firm and secure. It enters the inner sanctuary behind the curtain,

20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이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분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소망의 문이 되신다. 그 소망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 말한다. 닻은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정착하게 한다. 타이타닉 같은 대형 크루즈도 닻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주목할 것은, 그 소망의 닻이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영어로 보면 'Soul'에 내려지고 있다. '감정, 생각'에 내려지고 있다. (혼-프쉬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앵커링-닻을 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소망의 닻이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 견고하고 튼튼하다. 그 이유는 말씀을 보니, 20절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여셨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예배로 하늘문을 여는 일이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다윗은 예배했다. 감정의 폭풍 주변에 있지 말고 중심으로 들어오라. 그 중심에 이 모든 파도를 잠잠하게 해줄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고 계신다. 그분을 향한 소망의 닻을 생각과 감정에 내려야 한다.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예수님이 여신 문은 '천국의 문' - 즉, 소망의 문, 기쁨의 문이다.

(1) 내 인생의 마지막 건너편을 함께 가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한다. 그러면 폭풍을 이길 수 있다.

(2) 소망의 닻을 생각과 감정에 내려야 한다. (긍정적 사고, 믿음의 사고와 생각, 그리고 말)

소망이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게 해야 한다. '소망과 기쁨의 복음'의 문을 열자. 그리고 주변에 전하자.